

사 설

예산타령에 문화재 훼손위기

문화민족의 역사는 그들의 문화유산이 증명해준다. 아무리 훌륭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전통 문화와 문화재를 보존하지 못하면 문화민족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우리 한민족은 5천년의 역사 문화를 자랑하며 국민소득 만불 수준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음을 자부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함께 숨쉬고 있는 한민족의 문화유산은 세계 어느 민족에도 뒤질 수 없으며, 특히 석굴암과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이제 국제적인 문화재로 인정받아 세계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민족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팔만대장경(국보 32호)을 봉안한 장경각 지붕에 빗물이 새어들이 훼손될 위기에 있으며 그 지붕에 비닐을 뒤집어 씌우고 끝에는 양동이까지 매달아 추한 꼴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해인사는 가야산 국립공원이나 세계적

인 귀중한 문화재의 보존 상태를 본 외국인은 과연 문화민족의 정신이 살아 있고 선진국에 발돋움하는 한국의 위상을 어떻게 보겠는가. 참으로 부끄럽기에 앞서야 현실을 직시할 지경이다.

최근 사건만해도 민족정신의 얼이 서려 있는 서울 탑골공원의 인각사탑(국보 제2호)과 월각사 사적비(보물 제3호)와 경주 나탈리 5층석탑(국보 제39호)등 훼손되고 방치된 문화재가 수도무수하다고 한다.

이러한 문화재 방치에 대한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언론 매체에서도 만만찮게 거론되고 있지만 그 보존에 책임이 있는 정부 당국은 심각성에 대해 무지한 채 들은 척

도 않고 있다니 문민정부의 정신 상태를 알만하다.

해인사 장경각에 비가 새겨진 것은 이미 지난 8~9월부터이며 해인사에서 군공보실과 문화재 관리국에 상황을 보고하였으나 관리국측은 임시 응급조치만 하고 예산 관개로 57년이나 재원을 마련해 전면 보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96년에 내리는 비는 어떻게 감당하며 97년에산도 짜여야 할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 하면서 훼손되어 가는 문화재를 이대로 방치할 것 인지 정부 당국자의 문화적 수준이 참으로 의심스러운 따름이다.

이러한 문화재보존에 대한 무대책이 자칫 종교적인 관점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더욱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에 하나 그럴리아 없었지마는 훼손 방지되고 있는 문화재들이 불교 성보물인지라 입선에서 행정관리를 맡은 책임있는 관리들이 종교적인 시각에서 나타나 물지각함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적지않게 우려되는 바이다.

정부와 행정당국은 조속히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존 대책을 강구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범법종찰의 관리 책임자인 해인사도 상황을 미리 진단하여 사찰의 힘이 모자라면 종단이나 교계의 힘을 합쳐서라도 즉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하는 아쉬움도 있다.

행정당국은 민족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조상의 얼을 핏개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기를 간절히 당부하는 바이다.

시 론

정신적 중산층과 개혁

— 노씨의 '검은돈' 파동을 보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검은 돈을 두고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모든 언론매체는 흥분한 어조로 이 문제를 보도하고 비자금의 화제로 날이 지낸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자리는 도덕성과 헌신성을 상징하는 '통치권'의 자리 이기는 커녕 권력형 부정부패가 집중된 정점으로 비추기 시작됐다. 국민의 비웃음과 분노가 또다시 폭발한 것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정치적 질문을 모택하고 있는 듯하다는 관측이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모두 잊을 것이다. 그러다가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동정론자도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 국민의 심성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독재자에게 돌을 던지다가도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독재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 않은가. 신중하지 않은 여론은 참으로 이 나라를 갈망할광하게까지 한다. 그래서 그때만 되면 언젠가는 된다는 것이 모든 사회 문제의 핵심이 되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아니라 이 나라와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우리의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가능하고 있어야 한다.

흔히 중산층이 잘 형성되어야만 그 나라가 발전한다고 한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중류계층이 튼튼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정신적 중류계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건실한 국민여론을 주도하는 계층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론에 편승하는 지식인

언론매체의 상업주의나 선정보도에 휩싸이고, 이념의 극단주의자가 내세우는 양자택일의 논리에 포로가 되고 마는 것이 국민대중들의 정신적 상태라고나 할까? 그것은 각자가 제 눈으로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에 마음을 팔고 애국자가 되며, 일시적 여론에 편승하여 진보적 지식인이 되는 현실이 있게 되는 것이다.



김도중 (원광대 철학과 교수)

정신의 중산층, 여론을 뒷받침하는 계층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 원로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돈과 권력을 향해 허겁지겁 뛰어 다니는 출세주의자들만 판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면 누가 정신의 중산층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일차적으로 종교를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느 종교가

되었는지 진실한 신앙인들이 나라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종교인들마저 집단이기주의나 정통성 시비에 싸여 제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다. 종교 자체가 상업주의에 빠진 것이 더 슬픈 일인 것이다.

더 이상 수척스러운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진정한 의미의 정신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신개혁은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되고, 종교개혁은 거대종교인 불교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종교가 종파주의와 상업주의에 빠져 있는 동안 국민정신은 황폐해지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검은 돈을 쓰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은 돈에 몸을 파는 일을 더럽다고 욕하면서 돈에 마음을 파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말이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보는 모든 신앙인, 특히 불자들이 보다 신성한 정신개혁을 주도하여야 할 것이다.

통치권 물욕제우기 급급

대통령들 뿐만 아니라 작은 지역의회에 나서는 사람들, 각종 단체장에 나서는 사람들까지도 한결같은 돈타령이다. 젊잖은 표현으로 정치자금이요 하지만 그 용도는 결국 돈으로 사람을 사자는 것 아닌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돈에 팔리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초등학교 반장선거까지도 과거 함께 사준 사람이 당선된다고 하니 이 사회에서 돈에 팔리는 마음이 얼마나 많겠는가.

전직 대통령의 검은 돈에 대해서는 책임 가진 기관이 철저히 밝혀내어 한결 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실 정치의 이해관계에 따라 적당히 얼버무리지 않고 말이다.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다. 충분하다가 하늘만 쳐다볼 것이

열린 마당

재적 사찰

오늘날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간은 강력한 조직사회를 형성하였다. 조직화된 집단화된 조직력이 극대화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것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성이다. 아울러 산업사회에 기반한 근무일과 휴일의 개념이 전 사회적으로 관철되면서 부처님의 법을 접하는 형태도 요일개념에 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불교의 신행형태도 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일요일회의 활성화나 조계종에서 전개하고 있는 재적사찰같은 이러한 변화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조계종이 개혁불사의 일환으로 재적사찰 갖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신도법을 근간으로 신도회구성, 사찰운영위원회 결성 등 새로운 한국불교의 토대를 세우겠다는 종단의 의지다. 신행형태의 혁명으로서까지 일컬어지는 이 운동에 대해 불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가 유지되는 것은 불자가 아직도 기복불교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지 복만을 빌 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거나 실천하려는 생각이 부족한것이 오늘의 불자

대한불교조계종은 모든 조계종 신도로 하여금 신도등록을 하고 재적사찰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코자 한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축원카드만을 통해서 신도를 과

교무금을 납부하므로 대단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가 확립되면 한다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기대되는 효과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시행을 부정하거나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오직 염려되는 것은 과연 이같은 대변혁에 가까운 제도가 단시일내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더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스님들의 이동이나 소재가 행정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한성 조호정 <삼보법회 회장>



'무조직이 조직' 새로운 신행의 걸림돌 체계적 교리공부·사찰공개운영 초석

현재 불교신도는 모래알같은 조계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긴밀한 조직결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은 상태다. '무조직이 조직'이라는 불교조직의 실상은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자료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2천만 불자라고 운운하는 현실과는 달리 통계청이 지난 해 발표한 94년 사회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교인구는 약 8백2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우기 매주 신앙생활하는 인구는 약 40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재적사찰이라고 본다. 재적사찰갖기운동은 새로운 신행의 형태에 틀림없다. 불자라면 누구나 하나의 재적사찰을 정해 신도등록을 하고 재적사찰을 신행의 근본도량으로 삼아 활동을 해야 한다. 이는 재가불자로서는 지속적인 신행의 근본도량을 갖는 것이며 사찰의 입장에서 사찰을 의뢰하는 신도기반을 다지는 것이고, 범 종단적으로는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한국불교 역사상 대변혁을 가져올수 있는 불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운동을 전개하는데는 특정한 사찰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현재의 신행형태의 극복이 요구된다. 현재의 신행형태

우역 권기종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구속받지 않는 신행 타종교비해 장점 효율적 신도관리...단시일 변화 어려워

악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대단히 능률적인 신도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결과는 신도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이달은 행정력으로서 소위 1천만을 운운하는 불교도의 신상을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신도의 이동 또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한번 등록하고 다음해에 등록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 등의 누락과 이탈 이러한 제반문제의 관리가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또 다른 근원적 문제로서는 불교신행이 반드시 사원에 소속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 않다. 그래서 대다수의 불교도들은 일정한 소속사찰이 없었고 그것이 신행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점에서는 불교의 장점이자 특징이기도 하다.

그동안 신도가 되는 어떤 절차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수계조차 하지 않은 많은 신도가 있으며 스스로가 나는 불교도라 하고 생각하면 불교신도가 된다. 그러므로 신도가 신도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많은 신도는 그냥 신도이지 종단 내에서 어떤 권리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대만평 박구원

습기문제라면 우선 이것으로...

경 **대한불교 선교종 창종3주년 기념 및 제2세 종정예하 추대 대법회** 축

진리의 경각자이시고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와 본질이 연기관계에 있음을 자각하시고 더불어 사는 삶 즉 화합만이 모든 인류가 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궁행할 수 있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법연의 인연으로 대한불교 선교종이 고고의 뜻을 드높이 받들어 창종을 한 지 어언간 3년이 되었습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600년, 부처님의 자비의 법종자가 우리 나라에 전해진 후 신라 이차돈 선사 순교를 시작으로 발전과 번영을 이룩한 삼국 시대의 그 찬란한 민족문화의 지주였으며 통일신라에 와서 그 꽃을 피워낸 천년의 불교문화, 그 불교문화는 곧 민족사상의 뿌리이며 한민족 문화의 맥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고려에 와서 불교 역사의 일대 전환기를 맞아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인연으로 태고 보우국사의 오교구산을 통해 합하여 구산원융 오교총통에 힘을 다하였으며 원웅사상의 정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전개 과정을 고찰할 때 향후 대한불교 선교종의 역할은 첫째, 보우국사의 원웅정체와 이념을 꽃피우고 선과 교의 결수를 본중에 토착하여 대한불교 선교종 창종을 위한 일에 매진하여 부처님의 뜻에 따라 불교 창종의 기적을 이룰 것이며 원효대사의 화쟁정신과 만해선사의 유신이념을 더욱더 공고히 바로 받들어 실천궁행하는 중단이 되겠습니다. 둘째, 새롭게 거듭 태어난 대한불교 선교종은 부처님 자비정신을 이어 받아 상구보리하고 화해중생의 이념 구현을 실천궁행하는 자세로서 오늘날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하여 불심과 대원으로 등축이 되겠습니다. 셋째, 대한불교 선교종은 과거의 구태연한 모습에서 현대와 미래의 조화로운 모습으로 창조될 것이며 사회대중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중단이 되겠습니다. 넷째, 종도 대중은 힘차고 결집된 대한불교 선교종의 기반을 영속하게 하며 다시 한번 더욱 공고히 하고 해일의 광명을 상징하여 세대의 암흑을 밝혀주어야 할 신념으로 삼는 중단이 되겠습니다. 삼가 불조의 가호 밑에 우리 대한불교 선교종은 창종 3주년 및 제2세 종정예하 추대식을 맞이하여 선교종 법승의 영원한 번영을 비는 바입니다.

*대한불교 선교종은 중지 중중에 뜻을 같이 하고자 하시는 스님들을 위해 항상 교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종단 등록에 문의하실 분들은 아래 총무원으로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불기 2539년 11월 9일(음 9월 17일) 오전 11시 ■ 장소: 중구 영주동 코모도 호텔 총무홀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 : 부산 광역시 동구 수정2동 159-1 일신빌딩 1층 / 전화 : (051) 462-6181, 462-6652 / 팩스 : (051) 441-4022

대한불교 선교종 총무원장 류혜중 합장

대한불교 선교종 총무원 조직표

종 정	동 호	총무 포교위원장	경 담
사서실장	도 찬	총무 연수위원장	법 진
승정원 원장	근 봉	호계위원회 위원장	월 봉
승정원 위원		불교전문학회 위원장	법 루
청운, 임호, 효광, 대운, 소덕, 영보, 대연, 경담, 기담, 혜운, 국담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정 운
총승위원회 위원장	동 국	국제 포교위원장	일 여
총승 위원		총무원 원장	혜 중
국담, 임호, 청운, 기담, 혜정, 혜명, 정화, 춘용, 법해, 용화, 대광, 경호, 진용, 윤광		부 원 장	법 른
중앙총의회 의장	혜 응	총무부장	혜 진
부 의 장	보운, 법준	교무부장	도 현
사정원 원장	혜 봉	사회부장	도 인
부 원 장	혜 성	사정부장	회 근
교시위원회 위원장	동 광	포교부장	경 보
선교종 중승 연구위원장	국 담	총무 위원	
법규위원회 위원장	법 봉	연구, 해원, 현철, 혜동, 혜원, 혜륜, 성도, 화진, 보조, 법진	

종정추대 위원

혜중, 혜응, 혜봉, 동국, 혜명, 근봉, 동광, 보운, 혜동, 혜정, 일여, 혜덕, 보관, 정화, 법해, 혜진, 법준, 법봉, 도현, 혜륜, 대운, 해원, 현철, 선도화, 경보, 혜원, 혜성, 법륜, 국담, 월봉, 소운, 회근, 임호, 성재, 도인, 연구, 연관, 윤광, 효광, 도명, 도암, 현하, 진희 의 중도 일동